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2) - 해외 하부구조투자의 유형과 성격, 국적성의 문제 -

김용창*

요약 :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주요어 : 해외직접투자, 해외투자유형, 공기업, 하부구조, 해외에너지자원 개발

1. 머리말

본 연계논문의 제1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동향을 검토하고,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추이와 새로운 현상으로서 외국 국영초국적 기업 동향,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투자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외투자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다음, 대표적인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하 '하부구조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의 목적과 전략 및 진출단계를 분석하였다(김용창, 2012). 여기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10대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투자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공기업의 비중이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

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해외투자 사례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 하여 해외투자와 진출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진출유형을 분석하며, 하부구조 공기업의 국적성이 진출대상국(host country)의 경제 하부구조 서비스 공급에 대해 갖는 의미, 투자국 민간자본의 해외진출과 갖는 관계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하부구조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고, 이들의 투자대상은 일반 공장 등의 투자와 달리 국가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투사이기 때문에 자본유입국과 투자국 모두에서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해외투자 계기와 방법, 전략이 일반적인 민간자본 해외투자와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¹⁾.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2. 해외사업 및 진출의 일반 특징

우리나라 10대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진출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시기적 특징으로서 전체 199개 사례 가운데 2008년 이후 실적이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중심의 공격적인 공기업 세계화 및 해외투자 확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형화 촉진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는 제1편의 연구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동향과 일치한다. 이처럼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투자 세계화는 200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에너지관련 기업의 경우는 해외진출 역사가 비교적 오래 되었고, FDI 경험도 풍부하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해외진출 역사가 짧은 기업은 해외진출 사례도 적고, 위험부담이 적은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출지역은 자원개발부문을 제외하면 모두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기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

표 1.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진출 특징

기업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시기			전체 사례
	동/서 남아시 아	중동	중국/ 아시아	아프 리카	러시 아/ CIS	중남미	구미선 진국	전문건설링			직접 투자	자원 개발	2000 이전	2001~ 2007	2008 이후	
								수주형	무상 원조	유상 원조						
한국토지주택공사	4	1	2	2	1			3	4		3		2	1	7	10
한국도로공사	19	2			1	2		9	12	3				7	17	24
한국수자원공사	27	3	4	4	1	2		7	26	5	3		2	21	18	41
인천국제공항공사	2	1	2		2			4	1		2				7	7
한국지역난방공사	1		3		1				4		1		1		4	5
한국공항공사	2	1				1		4							4	4
한국전력공사 (하단은 자원개발)	10	6	3	2	3	2		7	1	1	17		2	4	20	26
	2			1			7					10		2	8	10
한국철도공사	1	3						4						1	3	4
한국가스공사 (하단은 자원개발)	4		2			1	1	5			3			1	7	8
	3	7		1	2		2					15	2	3	10	15
한국 석유 공사	탐사		6	2	9	2	3					22		15	7	22
	개발					1	3					4		1	3	4
	생산	3	1	1	2	2	3	7				19	8	2	9	19
합계	78	31	17	14	23	13	23	43	48	9	29	70	17	58	124	199
비중(%)	39.2	15.6	8.5	7.0	11.6	6.5	11.6	21.6	24.1	4.5	14.6	35.2	8.5	29.1	62.3	100.0

주: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동서남아시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였으며, 터키는 중동에 포함시킴. 연속사업의 경우 사업유형이 다르지 않는 경우(수주형/원조형 등)는 1건으로 계산하고, 진출 시기는 최초사업계약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필자 심층면접조사

다. 이러한 특징은 제1편에서 살펴본 세계 국영초국적기업들의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동·서남아시아의 비중이 39.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러시아 및 구 소비에트연방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CIS)도 새로운 진출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체제전환기 국가들이 새로운 중요 진출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출지역에서 특징적인 것은 구미 선진국으로 진출이 자원개발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문기술 컨설팅을 포함하여 한건의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유형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전문기술컨설팅 부문으로 전체 사례의 50.3%인 100건이며, 그 다음으로 자원개발 유형 직접투자와 기타 직접투자가 각각 35.2%, 14.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나머지 공기업 사이에서 나타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자원관련 공기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는 100%, 비자원개발 직접투자의 72.4%, 2008년 이후 해외진출 사례의 54.8%를 차지하여 공기업 세계화와 해외직접투자를 절대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세계 국영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행태 가운데 개발도상국·체제전환기형 국가의 특징을 보여준다(UNCTAD, 2011). 반면에 비에너지관련 기업들은 주로 전문컨설팅 분야에 집중하는 단계이며,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에 의존하는 컨설팅이 전체 컨설팅 100건의 5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상원조 형태이다(표 1 참조).

3. 해외투자의 유형과 특징

1) 해외진출의 세 유형

우리나라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는 진출분야와 단계에 따라 전문컨설팅 유형과 직접투자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해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기타분야 신규개발·지분인수 투자로 나눌 수 있다(김용창, 2012, 표 2 참조). 해외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전문기술 컨설팅 분야의 해외사업은 100건으로서 사례는 많지만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기간이 짧으며, 직접적인 사업주체로 참여하거나 자기자본투자를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업유형은 해당 진출국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국제입찰 참여를 통해 전문컨설팅 용역을 수주하는 사업, 우리나라의 공적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원조형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수주형 사업은 발주처의 사업자금으로 전문기술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조형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자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주형 사업은 43건이고, 원조형 사업이 57건으로서 원조형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기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원조제도가 관련 분야에서 공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축적과 교두보를 제공한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원조형 사업의 경우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국과 외교통상 관계의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며, 해당국의 요청에 따른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감사원,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0). 컨설팅 부문의 해외사업은 이처럼 진출초기단계에서 금융위험이나 직접투자에 따른 모기업의 위험부담 없이 해외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공기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대외 관계의

구축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세계화와 FDI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위험부담을 지면서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해외사업(그린필드형, 브라운필드형)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투자는 단순 지분보유에 따른 소득수익, 직접경영을 통한 기업이윤 등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통제권을 확보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만큼 다양한 위험회피 및 분산수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위험을 직접 감수해야 하며, 모기업의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초국적 자본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공간의 확장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국영초국적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도 FDI가 기업세계화의 가장 중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UNCTAD, 2011).

특히 경제 하부구조 관련 분야 해외직접투자는 전문기술 컨설팅 사업과는 차이가 난다. 우선 하부구조사업 특성상 다양한 사업금융 방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출 국가의 기본적인 하부구조를 공급함으로써 해당국의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민간기업의 공장투자와는 다르다. 말 그대로 진출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는 일로써 기본하부구조에 대한 해외자본 종속의 문제,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넘어선 정치적 위험을 낳을 수 있는 사업대상이다.

우리나라 하부구조 공기업도 세계적인 국영초국적기업 추세에 맞추어 2000년대 중반이후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대상 공기업들은 도시개발, 수자원 및 수력발전, 공항, 철도, 도로, 지역난방, 전력, 가스, 석유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하부구조 공기업들로서 진출국의 기본 하부구조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너지자원 투자 사업은 직접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을 탐사 또는 개발·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유형에 속하지만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였다²⁾.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가 1977년 25%의 지분으로 파라과이 샌안토니오 우라늄 탐사사업에 참여한 이래 민간부문 포함 201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총 750개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1년 6월 현재 65개국, 477개 사업(유전 185개, 광물 292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392억불(유전, 299억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였고, 이중 83%인 324억불을 2005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지식경제부, 2011c).

이처럼 우리나라 해외투자에서 에너지자원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석유와 가스부문에서 에너지 지정학적 차원의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자주개발률³⁾을 빠른 시일 내에 높여려는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석유·가스부문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4.2%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0.8%를 기록하였고, 2012년 20%, 2019년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위험부담이 큰 탐사·시추 분야보다는 생산광구의 매입이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공기업 대형화 전략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브라운필드 투자 중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이후 석유·가스 분야에서 92개 광구에 새로이 진출하였고, 새로운 에너지자원인 비전통석유·가스⁴⁾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1a).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해외투자 부문은 외국의 국영초국적기업에 비해 극단적인 부문 편중현상을 나타낸다. 즉 최대 투자업종은 광업으로서 누적기준으로는 89.1%를 차지하며, 2010년에는 96.9%에 해당하는 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대상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외국 국영초국적기업의 경우, 국제인수합병 실적(1981-2010) 기준의 광산, 채석 및 석유부문 투자

표 2.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진출 유형과 주요 특징

해외진출유형	진출기업	진출국가	주요특징
전문기술 건설팅	한국석유공사 제의 9개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체제전환 국가 중심으로 진출 • 대부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아프리카와 남미, 구소련연방 국가에 일부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건수가 많은 반면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기간이 짧음 • 사업주체로 직접참여나 자기자본투자를 하지 않음, 무상원조형 사업이 많음 • 국토후부구조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분석, 사업관리 (PM/CM), 전문기술서비스 중심의 전문기술용역제공 • 해외사업 경험축적과 교두보 확보에 중점 • 수주형 건설팅 증가추세, 다자간개발은행 발주 사업의 수주형태로 발전
신규개발· 지분인수	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공 항,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 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수요 국가 중심의 진출이 활발 • 중국,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러시아,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 멕시코, 도미니카, 카자흐스탄,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필드형 투자에서 브라운필드형 투자로 확대 • 지분보유에 따른 소득수익과 직접경영을 통한 기업이윤 추구 •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수주, 다양한 사업금융 방식 활용, 대규모 사업자금과 장기간의 사업기간 소요, 사업위험 부담 • 발전 및 LNG 사업 등 에너지 생산 중심의 진출이 활발 • 사업방식은 외국회사와 공동투자형태가 가장 많음 •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단독신규개발투자, 국내 민간기업과 합동투자, 외국회사와 공동투자, 다자간개발은행사업 컨소시엄, 단독 또는 국내기업 공동 지분인수, 국제공동투자방식 지분참여
해외자원 개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동, 구소련연방 국가 •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니제르, 콩고, 리비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전체 해외투자에서 에너지·광업 분야의 극단적인 편중, 석유·가스 중심의 투자, 비전통자원 분야 진출 확대 • 생산광구의 매입이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중심의 해외진출, 공기업 최초의 적대적 인수·합병 성공 • 국제컨소시엄 및 공동투자, 지분참여 방식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적 제휴의 적극적 활용, 북극권 등 진출지역의 다변화 • 단기간의 자주개발을 제고 목표에 치중하면서 해외자원 직접개발 사업에서는 성과가 미미함

비중은 선진국이 8%, 개발도상국은 37%에 불과하다(김용창, 2012;UNCAD, 2011).

2) 해외진출 및 투자의 교두보로서 전문기술 건설팅

전문건설팅분야 해외사업으로 제공하는 주요 전문기술서비스는 에너지 관련 사업, 도로·철도 관련사업, 수자원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종합계획수립, 조사사업 및 타당성조사, 사업관리(PM)·건설공사관리(CM),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전문교육훈련 및 기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체 사례와 내용 요약은 부표 1 참조).

이러한 사업유형은 전문건설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설계단계부터 한국형 발전모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도네시아 서민주택 개발조사사업 연구용역을 들 수 있다. 한국 국제협력단이 발주처이며, 인도네시아 반둥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주택 표준모델 개발사업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저렴주택 표준모델의 보급확산, 효율적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택정책 및 금융 관련 제도 개선사항 제안, 저렴주택 모델의 시범 건설을 위한 주택 설계, 구조 설계 및 시공지침 작성, 개발된 구조시스템의 구조성능 평가, 적용 가능한 재료 및 설비의 성능 평가 등으로서 한국토

지주택공사의 풍부한 신도시 개발경험의 수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진출하게 된 현실적 계기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이 중단 또는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보유기술을 상품화하여 자본투자부담이 없는 컨설팅 및 전문기술용역사업에 주력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1998년 11월 대만의 민자발전사업자인 포모사(Formosa Plastics)가 건설하는 맥료(麥寮: Mailiao)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전기술자문용역사업을 수주하면서 금융위기 국면에서 화력분야 운전기술을 최초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컨설팅 해외사업 단계는 사업규모가 작은 원조형 타당성조사나 계획수립 등이 대부분이지만 수주형 컨설팅의 경우는 용역서비스 규모가 원조형 컨설팅사업보다 크며, 발주처로서 해당 진출국 이외에 세계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사업을 수주하고, 국내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고도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자간개발은행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과 원조공여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⁵⁾.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개발은행의 용역사업 수주는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세계 모든 용역사업에서 그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세계은행이 발주한 총 사업비 3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도로망 개선사업」 설계, 시공, 용역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 평가 컨설팅용역을 37.2만 달러(약 4.5억 원)에 수주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로용역사업 부문에서 연평균 3천억 원 규모로 발주되는 다자간개발은행사업의 용역수주기반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 2010; 65-68).

공기업의 해외전문컨설팅 중심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과 관계에서 살펴보면, 공기업이 전문기술컨설팅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의 진출 토대를 제공하거나 전체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관리 책임을 지면서 시공부문을 국내 민간기업에 발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내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수주하는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하청관계로 공기업이 참여하면서 전문기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LNG 기지건설, 리비아 철도건설에서 공기업이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전문기술분야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례를 들 수 있다.

3) 신규개발 및 지분인수 유형 해외직접투자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는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과 마찬가지로 크게 신규개발 투자유형(green field)과 기존 시설 지분인수 투자유형(brown field)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전체 사례와 내용요약은 부표 2 참조). 먼저 신규개발 투자 유형은 진출대상국이 발주하는 사업에 국제 경쟁 입찰로 참여하여 진출국에 새로이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없던 시설이기 때문에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관리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이며,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은 투자유형이고, 사업실패 시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부구조투자인 관계로 건설소유운영방식(BOO)⁶⁾, 건설관리운영 후 인도방식(BOT)⁷⁾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신규개발투자 유형은 구체적인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단독신규개발 투자 유형은 공기업 단독으로 자체자금을 투자하여 해당 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100% 지분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전자의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국 공단개발사업과 베트남 공단개발사업, 후자의 사례로는 한국전력이 100% 지분참여

를 한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성능복구 및 운영·관리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베트남 박장성(Bắc Giang, 北江省) 한국 산업단지 사업은 베트남 박장성 비엠헌 지역(하노이 북동 45km)에 면적 101만㎡, 사업비 346억 원, 사업기간은 투자허가 승인일로부터 50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건설,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으로 2011년 2월 박장성 정부가 투자허가서 회수를 통보하면서 실패한 사업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국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합동투자 개발사업 유형이 있다. 현재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중 파트린드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지분투자 및 발전소 건설, 장기 운영 등 사업 전 단계를 책임지는 프로젝트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80% 지분을 투자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대우건설과 삼부토건이 각각 10% 지분참여와 시공을 맡는다. 사업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1.1억 달러, 글로벌인프라펀드가 400억 원을 투자하며, 총사업비는 4억 3600만 달러(출자 25%, 차입 75%)이다⁸⁾.

그러나 합동투자 개발사업의 가장 많은 유형은 외국회사와 공동투자형태로 해외직접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국내 공기업은 지분참여 형태로 투자한다. 인천공항의 중국 하이난공항과 합작개발사업, 한국전력의 필리핀 세부석탄화력(76%), 일리한 가스복합발전(51%), 중국 거명유한공사 합작사업(34%), 중국 감숙성 풍력발전(40%), 내몽고 풍력발전(40%), 요르단 복합화력(80%), 사우디아라비아 라빅중유화력(40%), 아랍에미리트 슈웨이hat S3(19.6%), 멕시코 노르메II(56%), 한국 가스공사의 멕시코 LNG(25%), 호주 글래드스톤 LNG(15%),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르 LNG(가스

전 9.8%, 터미널건설 14.975%) 사업 등이 이러한 투자유형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라빅중유화력 발전 사업은 최초의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한국전력의 해외 민자발전 사업 가운데 최초의 상업발전소이며, 호주 LNG 사업은 세계 최초로 석탄층메탄가스(CBM)을 이용한 LNG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신규개발투자 유형이지만 이상의 방식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 다자간개발은행이 발주하는 사업에 국내기업 컨소시엄 또는 단독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의 카자흐스탄 설계조달시공일괄수행(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이하 EPC) 사업 2건과 도미니카 배전선로 EPC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또 다른 유형은 기존 시설에 지분을 투자하여 참여하는 사업유형이다. 이러한 브라운필드 투자는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초기 설립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인력과 생산라인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화 전략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중요한 해외투자 방법이다(Shimizua *et al.*, 2004).

기존설비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필리핀 안갓 수력발전소 인수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이 최초로 해외수력발전소 운영권을 취득한 것이며, 한국수자원공사 최초의 해외 인수합병 사례에 해당한다. 유사한 사업방식으로서 한국전력과 중부발전이 각각 51%, 49% 지분참여를 통해 한국 공기업이 100% 지분을 갖고, 기존 시설의 정비운영을 책임지는 레바논 디라마르 및 자라비 발전소의 운전·정비 사업이 있다.

또 다른 지분참여방식으로는 국제 공동투자방식의 지분참여를 들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중국 강소성 상수도인수사업(수자원공사 32.5%, 중국 심천수도공사, 코룅),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중국 진황도유한공사 합작사업(난방공사 47%, 중국 50%, 제일창투 3%)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중국 진황도 사업은 한국 공기업 가운데 비교적 일찍이 해외투자에 나선 사례에 해당하며, 국내 집단 에너지 분야의 최초 해외진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96년 사업 참여 이래 계획대비 열수요 부진, 연료가격 상승과 낮은 열 판매가격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총 투자비 600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고, 2009년 지분 47%를 200만 달러에 매각한 사례이다.

이외에 일부지분을 인수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는 인천공항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공항(지분 10% 인수), 한국전력의 필리핀 나가 발전소(살콘사 지분 40%), 리스본스타 발전소(영국 BG그룹 지분 40% 인수)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리스본스타 사업은 사업비 4억 달러, 전력공급계약 25년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해외의 운전 중인 발전소를 최초로 인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4)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중심의 직접투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공기업 투자의 중심은 해외자원 개발투자이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결과로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공기업 해외투자 전략을 보여준다(전체 사례와 내용 요약은 부표 3 참조).

자원분야의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대상 공기업은 유연탄 등 다른 일반광물에도 투자하지만 대부분 석유·가스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1981년 해외석유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1년 6월말 현재 민간부문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석유가스 부문 투자는 진행사업 185개, 종료사업 134개로

총 319개 사업에 이른다. 생산광구 투자의 경우 다른 해외직접투자부문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기인 2000년대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자원개발 특성상 초기에는 투자 위험성 때문에 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탐사광구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1c). 참여방식에서도 경험축적을 위한 단순 지분 참여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권 및 다수 지분을 확보하면서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지식경제부, 2011a).

본 연구대상 공기업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이다. 이들 3개 기업의 자원개발 사례 70건의 해외사업 지분 분포는 표 3과 같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큰 자원개발 특성상 한국석유공사의 다나(Dana Petroleum)사, 헌트(Hunt)사, 한국전력공사의 바이롱(Bylong)광산 인수처럼 기업이나 생산광구에 대한 100% 지분 인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국제컨소시엄 및 공동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에서 위험분산 및 개발 성공확률 제고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이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에 참여하고, 한국컨소시엄이 51% 이상 지분을 취득하여 독자운영권 지위를 확보한 사례도 13건에 이른다. 지분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한국컨소시엄 구성이 비교적 적은 반면, 한국석유공사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면서 많은 사업에서 40%이상의 지배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이들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투자 변화를 보면 우선 진출지역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에너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이 두드러진다. 나망간

표 3. 해외자원개발투자 지분분포

(단위: %)

기업	공기업 보유 지분		한국전소시업 보유 지분	
	탐사	개발 / 생산	탐사	개발 / 생산
10% 미만	가스	동티모르 10, 모잠비크 10	미얀마 8.5 / 오만LNG 1.2, Ras 3, 예멘LNG 8.88	/ 오만LNG 5, Ras 5
	한전		/ 아다로 1.5, 몰라벤 1, 코카투 8.3	/ 몰라벤 5
	석유	이남 8, 잠빌 9.45	/ SES 8.91, 엘리펀트 2, 오나도 5.64	/ 엘리펀트 4
10~29%	가스	인도네시아 15, 우스투르트 25	우미악 20, 쥬바이르 18.75, 바드라 22.5, 수르길 22.5만수리아 15 /	/ 예멘LNG 11.88
	한전	크리이스트 12.5	/ 바얀리소스 20, 테니슨 17.07 이모라랭 15	
	석유	마사 25, 예멘428.5, 예멘70 12.35, 멕시코만심해 10.5(7), 서캄차카 20, 캄차카 27.5, 아랄해 10.2, 에끼즈카라 25	세일오일 23.67, Old Home 23.375 / Parallel 10, ADA 22.5, 엠분디 11, 캡틴 15, 페루8 20, 마리브 1.0613, 베트남 15-1 14.25	아랄해 20, 이남 20, 잠빌 27, 예멘70 25.65
30~50%	가스		키위가나 50, 아카스37.5 /	우스투르트 50 / 수르길50 /
	한전	위터베리 40		크리이스트 50, 위터베리 50
	석유 공사	쿠르드 43.75, OPL 43.875, 나망간 50, CPO 30, CPE 30, 사우스 42.5, 예멘1650, 예멘39 50	/ Petro Tech 50, 베트남11-2 39.75, 마황산 44	마사 50, 서캄차카 40, 캄차카 50, 에끼즈카라 50, 예멘4 50
51% 이상	가스			미얀마 59.5 /
	한전		/ 바이롱 100, 오나부 51	
	석유 공사	멕시코만천해 80, 바지안 50.4, 서페르가나 65, 베냉 80	Blackgold 100, Arystan 85 / Northstar 67, Taylor 80, Altius 95, Harvest 100, Hunt 100, 다나 100	멕시코만천해 100, 바지안 100, OPL 60, 서페르가나 100, 나망간 100, 사우스 75, 예멘16 95, 예멘 39 95

주: 1) 표의 수치는 보유 지분 사례임. 석유공사 10~29% 구간에서 10.5(7)은 멕시코만 심해 4개 광구 계약에서 3개는 10.5%, 1개 광구는 7%를 의미함. 한국전력은 연결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석유공사 쿠르드 43.75는 쿠르드지역 탐사광구계약은 1개 계약서에 지분이 다른 4개 광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치는 4개 광구 평균지분임.

2) <개발/생산>에서 '/'의 왼쪽 항목은 개발광구 사례, 오른쪽 항목은 생산광구 사례를 의미함. 공란은 사례가 없음 의미함.

자료: 필자 심층면접조사

츄스트 광구는 한국전소시업이 100% 지분을 갖는 사업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00% 지분을 갖는 사업이다. 이외에 다른 부문의 해외투자의 경우 구미선진국으로 진출한 사례가 없지만 해

외자원 부문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아프리카 및 북극권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석유·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오일샌드, 셰일가스, 석탄층 메탄가스 등 비전통 자원부문에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키위거나 광구개발은 국내 최초의 비전통 가스 사업이며, 한국석유공사의 미국 셰일오일 생산광구는 최초의 비전통 생산유전 지분인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⁹⁾와 헛트사 인수합병은 비전통 자원 생산광구와 관련한 기술 확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서 중요한 사례는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다나사에 대한 공기업 최초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다.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주가하락 시점을 기업인수 적기로 판단하여 2010년 8월 당사자 인수조건 불일치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였다. 10월 다나사 주식 90%를 취득한 후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폐지절차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2월 잔여주식 강제매입절차를 완료하여 100% 인수하였다. 그 결과 다나사가 북해지역 4개국, 아프리카지역 5개국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취약한 기술 및 인력자원 확보와 더불어 매장량 244백만 배럴, 일생산량 48천 배럴, 탐사 자원량 704백만 배럴을 일시에 확보하였다¹⁰⁾.

아울러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중요한 시장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호주 앵글로사가 동시 매각하는 5개 광산에 대하여 발전용탄 수요자인 한국전력공사, 제철용탄 수요자인 포스코, 호주 광산개발 기업인 코카투사(한국기업 지분 41% 소유) 등 3사로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패키지로 입찰에 참여하여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과 국제경쟁을 뚫고 수주하여 바이롱 유연탄광산 지분을 100% 인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시간에 자주개발률을 높히려는 생산시설과 광구 중심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자원 직접개발 사업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우리나라 공기업이 탐사부터 개발 및 생산·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¹¹⁾. 예외적으로 베트남 11-2, 15-1광구 사업은 한국석

유공사 최초의 해외운영광구 사업으로서 탐사, 개발, 생산 단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추부터 가스 매장량의 추정, 사업진행과 관련한 협상 과정, 해상 생산시설물의 설계와 건설 등 모든 단계와 분야에서 공사의 자체 인력이 국내 업체와 국내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아다(ADA) 광구는 석유공사가 직접 운영(지분 40%)하는 최초의 육상광구로서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에 성공한 첫 사례이다. 사실상 이들 사례가 성공한 직접개발 사례의 전부이다.

4. 하부구조 해외직접투자의 국적성과 갈등관계

1) 해외 하부구조의 생산과 통제

전술한 것처럼 공기업의 경제 하부구조 수출은 민간자본의 공장설립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국가를 배경으로 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해외투자는 국가 사이 외교적 관계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른바 ‘정상외교’의 실행 측면에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공적원조의 집행적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도 초기 진출단계에서는 해외투자경험이 부족한 공기업이 공적원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감사원, 2011; 이천우,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0). 다른 하나는 하부구조를 공급하는 투자인기 때문에 자본유입국가의 입장에서는 민간자본의 공장설립이 특정 입지나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사회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의 사회경제체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설비와 자원의 생산·공급을 해외의 공기업자본에 의존하는 문제를

낳는다. 하부구조의 민영화 추세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

예컨대 1987년 필리핀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간에게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업(IPP)을 허용하면서 외국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국전력은 1995년 말라야 발전소 성능복구 사업으로 처음 필리핀에 진출한 이래 2011년 세부발전소 준공으로 필리핀 전체 전력설비의 14.7%인 2,050MW의 전력을 공급하는 필리핀 제4위(외국 기업 2위)의 민간발전사업자로 성장하였다. 이는 필리핀 국가간산업분야에서 외국 공기업자본인 한국전력이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다른 직접투자자와 달리 공기업 하부구조 해외투자는 자본유입국과 수출국 모두에서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긴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직접 통제에

있지 않은 일반 민간자본의 해외투자(외국인 투자)가 ‘국가 : 민간’의 관계를 갖는 것과 달리 공기업의 해외투자는 ‘국가 : 국가’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관계가 나타난 사례로서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3월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 보유 지분 14.1% 가운데 60%를 사실상 몰수당하여 지분이 5.64%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기존의 광구 운영계약에 대해 정부 지분 50%이상의 합작회사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투자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탈리아의 ENI사와 프랑스의 Total사는 이러한 무상양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아 광구를 몰수당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부이난과 부그졸 등 알제리 4개 신도시 개발사업의 국제입찰에서 사업관리(PM)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알제

표 4. 세계 지역별 산업부문별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정도

(단위: %)

산업부문	동아시아/ 태평양 (10개국)	동유럽/중앙 아시아 (20개국)	고소득 OECD (12개국)	남미/카리브 연안 (14개국)	중동/북아 프리카 (5개국)	남아시아 (5개국)	사하라이남 (21개국)	87개국 평균
광업·석유·가스	75.7	96.2	100.0	91.0	78.8	88.0	95.2	92.0
농업, 임업	82.9	97.5	100.0	96.4	100.0	90.0	97.6	95.9
경공업	86.8	98.5	93.8	100.0	95.0	96.3	98.6	96.6
통신	64.9	96.2	89.9	94.5	84.0	94.8	84.1	88.0
전기	75.8	96.4	88.0	82.5	68.5	94.3	90.5	87.6
은행	76.1	100.0	97.1	96.4	82.0	87.2	84.7	91.0
보험	80.9	94.9	100.0	96.4	92.0	75.4	87.3	91.2
교통	63.7	84.0	69.2	80.8	63.2	79.8	86.6	78.5
미디어	36.1	73.1	73.3	73.1	70.0	68.0	69.9	68.0
건설·관광·소매	91.6	100.0	100.0	100.0	94.9	96.7	97.6	98.1
보건·쓰레기	84.1	100.0	91.7	96.4	90.0	100.0	100.0	96.0
평균	74.4	94.3	91.2	91.6	83.5	88.2	90.2	89.3

출처: ICAS and WBG(2010)

주: 외국인 지분소유 지수 100은 외국인의 100% 지분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리 정부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해외업체가 일정 지분 이상을 무조건 지분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면서 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이처럼 공기업의 세계화는 자본부족 국가에 기본하부구조 시설과 자원을 공급하는 측면과 중속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부여한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방적 정책을 취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하부구조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둔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특히 이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ICAS and WBG, 2010, 표 4 참조). 따라서 공기업 하부구조 투자는 정치·외교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투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2) 민간자본 글로벌 공간 지배의 교두보

지금까지 살펴본 공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를 보면, 하부구조 부문에서 공기업의 선도 진출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동반진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이 자체가 가장 큰 목표처럼 부각되기도 한다. 그림 1은 공기업의 비자원분야 해외투자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발전사업 부문에서 정부의 이러한 구상을 잘 보여준다(기획재정부, 2011; 지식경제부, 2011b).

일반적으로 하부구조 분야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문이다. 이러한 부문에서 공기업은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민간자본보다는 해당국과 협력체계구축이 용이하고, 공기업의 해외사업을 통한 국가 사이 제휴관계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본다. 그리고 역량 측면에서도 하부구조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에서 엔지니어링, 조달, 시공, 재무관리, 운영관리 등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통합·관리하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공기업이 해외프로젝트 종합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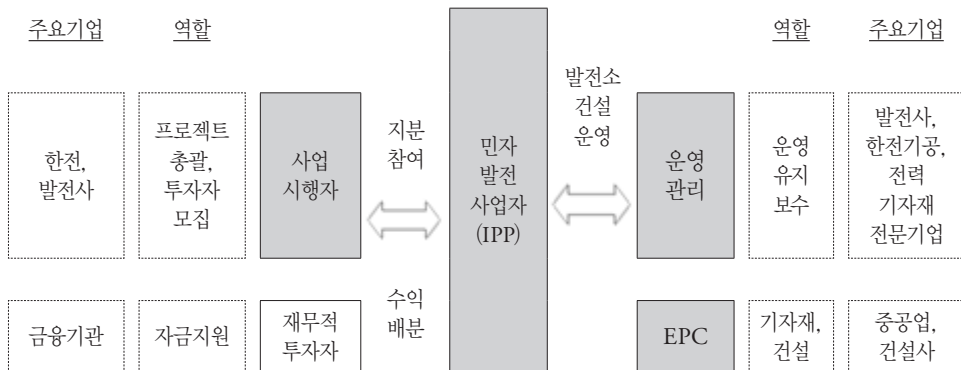


그림 1. 해외 민자발전사업 참여주체 역할 분담

출처: 지식경제부(2011b)

진철 외, 2009.26.30).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공적원조제도의 제공, 중장기 진출 전략의 수립, 금융지원제도의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정보제공, 이해당사 사이 경쟁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설립, 해외도시개발 엔지니어링 협의체·공기업해외진출협의회·전력산업 해외진출 민관협의회 등의 조정시스템 운영,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조성과 같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하부구조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부표 2와 부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컨소시엄 구성이 일반적인 사업방식이며,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국적 기반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 관계가 항상 동반적 관계는 아니다. 예컨대 2008년 멕시코 전력청이 발주한 LNG인수기지 프로젝트를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은 일본공기업과 일본 민간기업 사이 경쟁관계를 잘 보여준다.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은 일본의 미쓰이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경쟁상대자는 일본의 Tokyo Gas 컨소시엄(Tokyo Gas, Iberdrola, IHI, ICA Fluor)이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주관사업자로서 25%를 투자하고, 삼성물산과 일본 미쓰이상사는 지분투자자로서 각각 37.5%씩 참여하며, EPC 사업자로 인수기지 건설부문은 삼성엔지니어링, LNG선박 접안설비는 일본의 항만 건설업체인 도하(TOA)가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25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중유민자발전소(Rabigh)는 한국 공기업과 한국 민간기업 사이 이해관계를 달린한 경쟁관계를 보여준다. 한국전력컨소시엄은 벨기에 SUEZ, 영국 IP 등의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였다. 한국컨소시엄은 17억 달러 규모의 EPC 업자로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의 '산둥'과 '동방전기'를 선택하였고, 반면에 한국의 'GS건설'은 벨기에 SUEZ 컨소시엄의 EPC 업체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경쟁컨소시엄에 비해 지나치게 저가수주를 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을 배제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초국적 경쟁체제에서 국적기반 공기업과 민간자본 사이 관계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공기업 해외진출은 이른바 '국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익의 의미해석에서는 상호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관점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재정 및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인 의미는 민간자본의 교두보 역할에서 우선적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국 국민일반 및 전체 경제주체 일반의 이해관계에서 찾는 것이다. 반면 통상주의 국가 개념의 입장에서는 양자 사이 상호 동반적 관계, 민간자본의 교두보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투자이익을 관련 민간 기업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배분하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하부구조 일반의 관점에서 공기업 해외투자의 정당화 논리는 무엇보다도 자국에 해당 하부구조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해외부문에서 투자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단순한 가격수용자의 지위를 벗어나 가격 조정능력을 가지며, 시장가격 변동성에 대한 방어기능을 수행하고, 자원 확보를 통해 국내 에너지가격 상승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자국 국민과 경제주체 일반에 그 이익을 배분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글로벌 공간지배의 교두보로서 역할은 부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투자는 에너지관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사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해외투자 역사가 길면서 공기업 체계화와 해외직접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아직 없는 전문 컨설팅 중심의 초기 해외진출 단계에 있다. 진출지역은 자원개발부문을 제외하면 모두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기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컨설팅 유형은 주로 진출 초기단계에 해당하고, 공적원조제도를 기반으로 경험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다자간개발은행 사업과 같은 수주형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비에너지 분야 해외직접투자유형은 신규개발 유형의 경우는 단독개발 사업 유형, 국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합동투자 개발사업 유형, 외국회사와 공동투자형태의 지분참여 투자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브라운필드 유형은 기존설비를 인수·합병하는 방식, 국제 공동투자방식의 지분참여로 해당 사업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너지자원 투자 사업은 전체 해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극단적인 부문 편중현상을 보인다. 동시에 진출지역의 다변화, 비전통 자원부문으로 진출, 적대적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투자는 자본부족 국가에 기본하부구조 시설과 자원을 공급하는 측면과 중속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과의 관계설정에서는 이른바 ‘국익’의 관점을 중시하지만 그 의미 해석에서는 상호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해외투자시장에서 최근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영초국적기업 또는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일반 민간자본의 해외투자와는 다른 경로와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해외투자이론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주

- 1) 분석에 사용한 연구 자료의 수집은 제1편에서 밝힌 바와 같다.
- 2)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은 국외에서 광물,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자원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3) 자주개발률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직접 조달하는 규모를 뜻한다. 즉 특정 자원의 필요 총량 중 얼마만큼의 물량을 해외에서 직접 확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자주개발률 산정 공식을 2007년까지는 ‘연간생산량/365일’로 계산했으나, 2008년 이후 ‘연간생산량/실조업일수’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수치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4) 비전통분야는 기존 생산방식과는 다른 기술·방법을 활용하여 생산·추출되는 자원으로서, 비전통 석유(오일샌드, 초중질유, 오일셰일 등), 비전통가스(셰일가스, 치밀가스, CBM)를 이른다.
- 5) 다자간개발은행(MDB)이란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발도상국, 다수의 재원 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은행을 말한다. 현재 각 대륙별로 총 5개의 기관을 MDB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IDBG),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을 말한다(국토해양부, 2010).
- 6)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먼저 투자한 다음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자금 조달운용기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한다.
- 7)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하며, 운영을 통해 그

-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 투자자에 대해 배당을 한다. 운영기간이 끝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 8)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동 사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국제개발금융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공사(IFC), 이슬람개발은행(IDB)의 금융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해외 사업의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9) 총 39.5억 달러를 투입한 하베스트사 인수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거래완료 시까지 하베스트 부채를 모두 상환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가인수 논란이 일었다. 자주개발을 제고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얽매이면서 기업인수에서 정밀한 자산실사 및 타당성 분석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

였다.

- 10) 2008년 정부의 한국석유공사 대형화정책 추진방침에 따라 최근까지 석유공사는 외국의 자원개발 기업을 인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 초부터 현재까지 12개를 인수하였고, 이를 위해 총 99억5800만 달러(약 10조 5000억 원)를 투입하였다. 석유공사가 인수에 성공한 기업으로는 8억 7700달러를 들인 미국 앙코르(Ankor)(2008년), 39억 5000만 달러가 들어간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2009년), 29억 9700만 달러를 들여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성공한 영국 다나(Dana), 5억 3000만 달러가 들어간 캐나다 헌트(Hunt) 등이 대표적이다.
- 11) 이미 생산을 개시한 기업이나 생산광구는 인수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표 1. 전문기술컨설팅 분야 해외사업 사례

진출기업	진출국가	진출사업	주요 내용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탄자니아	키감보니 신도시	• 용역비 20억 원, 사업면적 6421만㎡, 사업기간 09.8 -10.5 • 수주형 사업,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개발	• 용역비 360억 원, 사업면적 7200만㎡, 계약발효 대기 중 • 수주형 사업, 대통령 순방 시 신도시건설 기술자문 제공합의 사업의 추진,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UAE	한국클린테크클러스터 개발	• 연구비 8억 원 가운데 토지주택공사의 지분 6천만 원, 사업면적 15만㎡, 사업기간 10.12-11.10, 종합계획 수립용역 • 수주형 사업,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 조성관련 사전조사 사업
	인도네시아	서민주택개발	• 용역비 2.6억 원, 사업기간 01.12-03.2 • 원조형 사업(KOICA), 주택개발 조사사업
	베트남	하이퐁신도시	• 용역비 3천만원, 사업면적 325만㎡, 사업기간 09.10-10.7 • 원조형 사업(KOICA), 신도시 개발계획기술자문용역
	가나	신도시 개발계획	• 용역비 2.4억 원, 사업면적 59,100만㎡, 사업기간 1단계 09.4- 10.10, 2단계 10.11-12.3 • 원조형 사업(KOICA), 기술자문 용역 1·2단계
	필리핀	농공복합산업단지	• 용역비 1억 4천만 원, 사업기간 사전조사 09.9-10.2, 사업관리 10.5 -11.6, • 원조형 사업(KOICA), 사전조사, 사업관리·기술자문, 타당성조사
한국 도로 공사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	• 용역비 1.44억원, 사업기간 05.1-05.9, • 원조형사업(KOICA), 실시설계
		수마트라 간선도로	• 용역비 0.49억원, 사업기간 08.10-09.9, • 원조형 사업(KOICA), 종합계획 기술지원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사전	• 용역비 0.3억원/0.67억원, 사업기간 05.2-05.4/ 05.12-12 • 원조형 사업(KOICA), 건설 및 포장사업 공사관리(CM) 연계사업 수주, 타당성 조사 및 공사 관리
		시엠립 우회도로 포장사업	• 용역비 2.86억원 / 0.3억원, 사업기간 08.3-09.5 / 09.9-10.2, 공사관리 및 2단계 사전조사, • 1차 무상원조형사업, 2차 수주형사업(연계수주)
		시엠립 한국순환도로	• 용역비 4.97억원, 사업기간 10.4-12.12, 2차 사업관리 • 원조형 사업(KOICA), 시공분야 국내기업 수주
	트랜스 코메르고속도로	• 용역비 각 사업별 0.71, 0.65, 0.87, 0.44억원, 사업기간 08.10-09.5 / 09.6- 10.4/ 09.6-10.6/10.6-10.12 • 수주형 사업, 기본설계관리 및 기술자문 연계사업 수주, 기본설계관리 1차, 2차 및 기술자문 1차, 2차	

진출기업	진출국가	진출사업	주요 내용	
한국 도로 공사	캄보디아	국도건설 설계관리	• 용역비 10.4억원, 사업기간 10.5-13.8, 실시설계 및 시공관리 • 유상원조형사업(경제협력개발기금 EDCF), 삼보기술단과 컨소시엄	
	스리랑카	마하나마고 건설	• 용역비 1.8억원, 사업기간 05.5-08.1, • 원조형 사업(KOICA), 공사관리	
		도로개발	• 용역비 1.45억원, 사업기간 08.2-08.8/09.3-09.9 • 원조형 사업(KOICA), 기술자문 1차와 2차	
	이라크	아르빌 고속도로	• 용역비 0.7억원, 사업기간 06.1-06.6, • 무상원조형사업, 실시설계·감리	
	필리핀	국도 건설·개량	• 용역비 0.29억원, 사업기간 06.12-07.12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사업 및 감리	
		메트로마닐라 우회고속도로	• 용역비 0.87억원, 사업기간 10.7-12.3 • 원조형 사업(KOICA), 일본 대외무역기구가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사업, 타당성조사 기술 자문	
	라오스	농촌마을도로	• 용역비 0.98억원, 사업기간 07.4-07.6, • 원조형 사업(KOICA), 건설 공사 관리(CM)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 용역비 17.28억원, 사업기간 07.6-7/08.2-11.12 • 수주형 사업, 실시설계 연계사업 수주, 민간기업 시공분야 수주 기반 제공, 국내기업, 베트남기업과 공동컨소시엄,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 용역비 13.87억원, 사업기간 09.2-09.6/10.3-10.7 • 수주형 사업, 실시설계평가사업 2차 연계수주, 실시설계 평가 1차, 2차	
		종릉-건터 고속도로	• 용역비 0.78억원, 사업기간 08.5-08.6, • 수주형 사업, 기본설계평가	
		호치민-종릉 고속도로	• 용역비 0.13억원, 사업기간 08.11-08.12, • 수주형 사업,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기본설계	
		꺼우지에-닝빙고속도로	• 용역비 1.2억원, 사업기간 09.8-10.10, • 수주형 사업, VE, 설계 평가	
	북부지역 도로망 개선사업	• 용역비 4.48억원, 사업기간 10.7-13.12, 기술 감사 • 수주형 사업, 다자간개발은행(MDB) 발주(세계은행)		
	아제르바이젠	해상교량건설 사업	• 용역비 1.43억원, 사업기간 09.5-11.08 • 원조형 사업(KOICA), 기획 및 관리자문	
	콜롬비아	ITS 구축 타당성조사	• 용역비 2.58억원, 사업기간 09.12-10.5 • 원조형 사업(EDCF 유상원조), ITS코리아 공동사업	
	터키	이스탄불 해저도로	• 용역비 2.11억원, 사업기간 10.7-11.1 • 수주형 사업, 국내기업 및 터키 컨소시엄 발주, 실시기술자문	
	볼리비아	마드레 데 디오스교량	• 용역비 0.56억원, 사업기간 10.12-11.4 • 원조형 사업(한국경제개발협력자금(EDCF) 유상원조), 타당성 조사	
	한국 수자원 공사	베트남	호아빈 상수도	• 사업기간 05.12-07.3, • 원조형 사업(EDCF 유상원조), 타당성조사
			호아칸띠어 상수도	• 사업기간 07.9-07.12, • 원조형 사업(EDCF 유상원조), 타당성조사
			끼엔장 식수개발	• 사업기간 08.1-10.7, • 원조형 사업(KOICA), 설계·감리업무
Buon Ho 상수도			• 사업기간 10.7-12.12,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시공감리	
필리핀		팜팡가 홍수통제	• 사업기간 08.10-09.4, • 원조형 사업(EDCF 유상원조), 타당성조사	
		말리나오ئم 개선	• 사업비 1백만 달러, 사업기간 08.5-09.5,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설계	
캄보디아		다운트리·몽골보레이 댐	• 사업기간 09.3-09.8, • 원조형 사업(EDCF 유상원조), 타당성조사	
		메콩강 수자원조사	• 사업기간 99.4-00.9,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 조사	
		타목저수지 복구	• 사업기간 03.1-04.12,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설계시공	
		크랑폰리강유역	• 사업기간 04.9-05.3,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사업	
		수자원개발 종합계획	• 사업기간 06.9-08.11, 사업비 148만 7천 달러 • 원조형 사업(KOICA), 중장기수자원개발계획, 세부실행계획 등 수립	
		세산Ⅲ 수력발전사업	• 사업기간 08.6-08.11, 자금조달 포스코 건설 • 수주형 기술용역, 사업공동개발협약에 의한 타당성조사	
프렉트눗 수자원개발	• 사업기간 09.11-10.2, 자금조달 금호건설 • 수주형 기술용역, 사업공동개발협약에 의한 타당성조사			

진출기업	진출국가	진출사업	주요 내용
한국 수자원 공사	캄보 디아	푸삿강 수자원개발	• 사업기간 09.10-10.4, 자금조달 금호건설 • 수주형 기술용역, 사업공동개발협약에 의한 타당성조사
		크랑폰리강 수자원	• 사업기간 07.5-12.2, 무상원조 사업이후 본 사업 • 원조형 사업(EDCF 유상원조), 실시설계, 시공감리
	중국	산서성 분하강 유역	• 사업기간 94.7-96.6,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 조사 사업
	네팔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 사업기간 00.7-02.1, • 원조형 사업(KOICA), 실시설계 사업
	아프카 니스탄	이스탈리프 소수력	• 사업기간 04.6-06.9, • 원조형 사업(KOICA), 발전소 건립 타당성조사
			• 사업기간 06.12-07.12 / 08.7-11.7, 운영관리, 실시설계, 시공감리 • 원조형 사업(KOICA), 발전소 사후관리사업(1차, 2차)
	인도네시아	까리안담 사업	• 사업기간 04.10-06.9,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 사업기간 10.2-12.1, • 원조형 사업(KOICA), 도수로 개발사업 기술자문
	페루	아마릴리스 상수도	• 사업기간 04.12-06.2, • 원조형 사업(KOICA), 설계, 감리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 사업기간 05.10-07.4,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설계
		아르빌 침사지 설치 베칼 소수력발전소	• 사업기간 09.11-11.5, • 원조형 사업(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 사업기간 07.6-09.10, • 원조형 사업(KOICA), 설계 및 시공감리
	몽골	식수개발 사업	• 사업기간 05.12-07.2,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설계
	르완다	나바롱고강 식수개발	• 사업기간 07.7-08.10, • 원조형 사업(KOICA), 타당성조사
	스리랑카	발레제나이	• 사업기간 06.11-08.12, • 원조형 사업(KOICA), 홍방지 사업 설계, 감리
	케냐	정수장, 상수도 건설	• 사업기간 07.8-09.2, • 원조형 사업(KOICA), 상도 건설 설계, 감리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	• 사업기간 07.9-09.7, • 원조형 사업(KOICA), 종합계획 기본계획수립
	아이티	크루아테부께 식수	• 사업기간 08.10-09.12, • 무상원조형 사업, 식수공급확장 설계, 감리
	라오스	볼리칸 식수개발 셋방파이 상수도	• 사업기간 07.12-09.12, • 원조형 사업(KOICA), 설계, 감리
			• 사업기간 10.12-12.6, • 원조형 사업(KOICA), 실시설계, 시공감리
	몽고	댐 재개발	• 사업기간 09.3-09.6, 자금조달 FREK(법인) • 수주형사업, 사업공동개발협약에 의한 타당성조사 수행
적도 기니	몽고모정수장(1차·2차)	• 사업기간 06.11-09.11 / 10.7-13.6 • 수주형 사업(자금조달 현지정부), 운영·유지관리	
인도	리키모 수력발전사업 (1차·2차)	• 사업기간 06.3-11.3 / 11.4-15.4, 기술용역 제안사업 • 수주형 사업(자금조달 NEC), 기술지원	
파키 스탄	STAR Hydro	• 사업기간 09.10-14.9, 자금조달 STAR Hydro • 수주형 사업, Patrind 투자사업과 연계를 통한 기술지원·자문 사업	
우즈베 키스탄	Kaparask 식수	• 사업기간 10.7-11.4, • 원조형 사업(KOICA), 식수공급 기술자문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이라크	아르빌신공항	• 용역비 0,3151억 달러(441억원), 사업기간 09.2-14.3 • 수주형 사업(쿠르드 정부 발주), 전담직원 파견 운영컨설팅
	러시아	하바로브스크공항	• 용역비 120만 달러, 사업기간 09.12-10.12 • 수주형사업(알리안츠 프롬 발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필리핀	막탄세부공항	• 용역비 105만 달러(약 11.4억원), 사업기간 10.8-11.7 • 원조형 사업(KOICA), 대우ENG 컨소시엄, 종합계획·타당성 조사
	캄보 디아	시엠펜신공항	• 용역비 30만 달러, 사업기간 10.12-11.5, IT분야 설계감리 • 수주형사업(시엠펜국제공항, 한국기업투자법인)
네팔	신공항 세부사업	• 용역비 10만 달러, 사업기간 10.4-10.6, 타당성 조사 • 수주형 사업(네팔정부 발주), 공항운영과 비즈니스플랜	
한국 지역 난방 공사	몽골	울란바트르시 기계실 개체	• 사업기간 08.9-09.8, • 원조형 사업(KOICA), 기계실 개체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바룬우르트시 석탄보일러· 태양광	• 사업기간 10.12-12.6 • 원조형 사업(KOICA), 신축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진출기업	진출국가	진출사업	주요 내용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우즈베키스탄	호레즘 보일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09.12-10.12 원조형 사업(KOICA), 보일러실 개체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동티모르	태양광발전 해수담수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6백만달러, 사업기간 11.4-12.11 원조형 사업(KOICA), 담수화 설비 신축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한국 공항 공사	필리핀	클라크공항 운영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수의 설계 50억원, 운영관리 3천억원(정보통신구축사업, '11수주) 수주형 사업, 사업방식 BOT 30년간(투자자 필요에어로)
	콜롬비아	산타마르타 등 6개 공항 운영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예산수수의 약 80억 원, 사업기간 2011.1-2026 수주형 사업, 콜롬비아 항공청 발주, Oriente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을 위한 한국공항공사 최초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베트남	반돈 신국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방식 BOT 35년, 설계사업관리, 항행안전장비설치(2011) 수주형 사업, 투자자 조이너스사(SPC), 신공항 운영관리사업
	터키 외 11국	항행안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개국 수출금액 138억 원, 2008년 5월 이후 수출 수주형 사업, 해당국 정부조달 입찰참여, 컨소시엄구성(장비공급 + 해외 또는 국내 토목공사기업), 장비 설치사업
한국 전력 공사	가나	가나-말리 사이 연계 송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122만 달러, 사업기간 08.12-11.6 수주형 사업, 유럽투자은행(EIB)자금, 송전망 경과지 선정 사업
	코트디부아르	4개국 연계 송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230만 달러, 사업기간 08.9-11.12 수주형 사업, 유럽투자은행(EIB)자금, 송전망 경과지 선정 사업
	방글라데시	메그나트-아민바자 송전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78만 달러, 사업기간 08.5-12.5 수주형 사업, 아시아개발은행(ADB)자금, 송전선로 건설 컨설팅
		다카 변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38만 달러, 사업기간 08.7-12.8 수주형 사업,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변전소 건설 컨설팅
		무효전력설비·변전소보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83만 달러, 사업기간 09.5-11.12 수주형 사업, 동경전력 등 외국 업체와 경쟁수주
	캄보디아	캄푹-시아누크빌 송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155만 달러, 사업기간 08.12-13.7 수주형 사업, 세계은행 자금, 송전망 건설 컨설팅
	파키스탄	구즈란왈라 변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157만 달러, 사업기간 09.7-12.6 원조형 사업(EDCF), 차관제공조건으로서 용역구매국가는 한국 및 한국 업체들 사이 경쟁입찰, 변전소 건설 컨설팅
	사우디아라비아	원격자동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118만 달러, 사업기간 09.7-11.7 수주형 사업, 원격자동검침(AMR)구축 기술자문 사업
	아제르바이잔	배전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206만 달러, 사업기간 11.3-13.2 원조형 사업(KOICA), 배전자동화 구축사업
한국 철도 공사	말레이시아	전동차 개·보수 (150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수입 약 18.5억 원, 사업기간 07.3-09.12, 개·보수 컨설팅사업 수주형 사업, 말레이시아 현지회사와 컨소시엄(MKR)
	리비아	철도청직원 교육훈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23.4억원, 사업기간 1년(2011년 시행예정이나 일시중단) 수주형 사업, 서트-트리폴리지역 사이 철도건설사업의 일부(건설사업 중국 2조 2천억 원, 감리 동명기술공단 417억 원)
		철도청 기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금액 6.62억 원, 사업기간 10.8-12.8 수주형 사업, 동명기술공단의 서트-트리폴리 사이 철도감리사업 전기분야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금액 3.31억 원, 사업기간 1년(2011년 시행예정이나 일시중단) 수주형 사업, 트리폴리-라사자드르 구간 감리사업 동명기술단 수주 후 공사와 자문인력 협력, 기술자문 용역사업 	
한국 가스 공사	태국	LNG 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5.4억 달러(한국컨소시엄, 공사 지분 850만 달러), 사업기간 08.2-11.5, 태국국영석유가스회사 자회사(PTT LNG) 발주 사업 수주형 사업, LNG 터미널 기술서비스사업, 공사, 대우, GS건설과 플랜트사업 동반진출(공사는 기술자문, 시운전, 교육훈련 담당)

진출기업	진출국가	진출사업	주요 내용
한국 가스 공사	베트남	호치민시-푸미공단 가스공급 배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사업비 116만 달러(14억 원), 총 사업기간 18개월, 설계와 기자재 구매, 건설 자문, 교육훈련 제공 및 기술전수 등의 기술자문용역 제공, 한국 업체 최초로 베트남의 기술자문용역 분야 진출(03,8) • 수주형 사업, 호주 JC Penny 등 3개사와 일본 이데미쓰사 등과 경쟁을 통해 낙찰, 대우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구성
	싱가포르	싱가포르 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6,28억 달러(7300억 원, 삼성물산 단독 수주 사업), 사업기간 10.2-13.4(공사 계약금액 850만 달러) • 수주형 사업, LNG터미널기술서비스사업, 공사와 삼성물산의 플랜트사업 동반진출(공사는 기술자문, 시운전, 교육훈련 담당)
	중국	북경성 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08.3-08.11, 한국가스공사가 LNG 터미널 부문에서 기술자문사업 최초 수주 • 수주형 사업, 터미널 시운전 및 초기 상업운전 기간 중 기술자문·교육
		강소성 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10.7-12.7, 3차례에 걸쳐 유한공사 인력 60명에 대한 기술교육 시행 및 5명의 기술인력 현지 파견, 계약금액 710만 달러 • 수주형 사업, LNG 기술자문, 시운전, 교육훈련 서비스 사업

자료: 필자 심층면접조사

부표 2. 직접투자 유형 해외사업 사례

진출기업	진출국가	사업대상	주요 내용과 성격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중국	천진공업단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275억 원, 사업면적 114만㎡, 사업기간 '93.8~'96.6 • 자체자금 투자의 공단개발사업
		심양공업단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94억 원, 사업면적 42만㎡, 사업기간 95.4~'96.12 • 자체자금 투자의 공단개발사업
한국 수자원 공사	베트남	박장성 한국산업단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346억 원, 사업면적 101만㎡, 사업철회 후 청산절차 진행 중 • 자체자금 투자의 공단개발사업, 05 건설공동발표, 08.12 투자허가승인(사업기간 50년), 산업은행 컨소시엄 사업인계철회 및 사업철회 통보(11.4)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4.36억 달러(출자 25% 포함), 수력발전 설비 147MW, 사업기간 09.4-43.10 (건설 4.25년, 운영관리 30년), 운영 후 발전소 이관하는 BOT 방식, 공사 80%, 대우건설 및 삼부토건 각 10% 등 국내 기업이 100% 지분 참여해 개발에서 운영까지 맡는 투자 개발형 사업 • 국내최초의 민관합동투자사업(출자 25%, 차입 75%), 파키스탄정부 전력대금 지급보증, 30년 물 사용계약
	필리핀	안갓 수력 발전소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4.4억 달러(4410억원), 수력발전설비 246MW • 국제입찰에서 낙찰(10.4), 투자 및 운영관리,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수력발전소 운영권 취득 및 수자원공사 최초의 해외 인수합병 사례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중국	강소성 사양현 지방상수도 인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70억 원, 사업기간 10.12-39.12, 32.5%의 지분 확보 • 연 13% 이상의 수익률과 연간 13억 원 이상의 배당수익 기대, 제1호 한중 합작 물사업, 코오롱 및 중국 심천수도공사 공동사업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00억 원, 공항 지분 10%인수 및 3대 주주지위 확보, 러시아 진출의 전략적 지분투자(11.7) • 외국공항운영기업이 러시아 공항 지분 인수한 것은 처음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중국	하이난공항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51억 원(인천공항 약 21억원), 사업기간 2011-2023 • 건설링 외 위탁운영, 에어시티 개발 등 7개 사업 분야, 합자회사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 합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열·전기 공급, 최초 지분구조 중국 50%, 난방공사 47%(600만 달러), 제일창투 3%, 사업기간 96.7-09.4(96-06년 누적손실 170억),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 최초의 해외사업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5월 중국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 지분 47% 일괄매각(200만 달러)
한국 전력 공사	필리핀	말라야 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2.6억 달러(한전 출자 0.2억 달러), 한전 지분 100%, 사업기간 95.9-11.1, 국제경쟁입찰 방식, 성능보구·운영관리 • 수주형 사업; 발주처 필리핀전력공사

진출 기업	진출 국가	사업대상	주요 내용과 성격
한국 전력공사	필리핀	일리한 가스복합발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7.2억 달러(한전 출자 0.9억 달러), 한전 지분 51%, 사업기간 99.3-22.6, 국제경쟁입찰 방식 • 수주형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BOT 방식
		나가발전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0.2억 달러, 복구운영사업 지분참여 사업기간 2006-2012. • 지분인수형 사업, 살콘(Salcon)사의 지분 40%를 인수(한전 20만 달러, 한전 필리핀법인 KEPHILCO 차입 1,950만 달러)
		세부 석탄화력 건설·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4.51억 달러, 합자회사 설립(한전 76%, 현지 SPC파워 전력회사 24%), 사업기간 11.6-36.6, 두산중공업 시공부문 100% 턴키계약 • 수주형 사업, BOO 방식(예상 판매수익 32억달러, 순수익 8억 달러 예상), 한전의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 중 최초의 상업발전소
		리스본스타 가스복합발전소 지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4억 달러(약 4367억 원, 차입 2620억 원, 자본 1747억 원), 사업기간 25년 전력공급계약, 영국 BG그룹 지분 40% 인수, 연간 매출액 약 10억 달러 • 지분인수 사업(2010.9), 해외운전중인 발전소의 최초 인수, BOO 방식
	중국	감속성 풍력 건설·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1억 달러(한전 출자 0.14억 달러), 한전 지분 40%, 다방(大唐)집단공사 60%, 사업기간 06.4-26 (07.4 준공) • 수주형 사업, BOO 방식
		내몽고 풍력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약 15.8억 달러(한전 출자금 약 2.09억 달러), 한전 40%, 다방(大唐)집단공사 60%, 사업기간은 건설기간 제외 20년(2011.11) • 수주형 사업, BOO 방식, 건설 및 운영사업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格盟國際能源有限公司) 합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약 13.4억 달러(100억 위안, 한전 출자 4.5억 달러, 34억 위안), 산서국제전력집단공사(SIEG) 47%, 한전 34%, 일본콘소시엄 10%, 도이치은행 9%, 사업기간 회사설립 후 50년(07.4-57.4) • 합자사업, 산서성내 발전, 탄광사업 개발 및 운영사업(발전설비용량 5,990MW, 5개 탄광 2.2억톤)
	레바논	디라마르·자라비 발전소 운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0.856억 달러, 한전 51%, 중부발전 49%, 사업기간 06.2-11.2, 국제 경쟁입찰방식 • 수주형 사업, 발주처 레바논 전력청
		요르단	알카트라나 복합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25억 달러(한전 출자금 2억 달러), 한전 40%, 사우디발전회사 40%, 사우디전력공사 20%의 지분구조, 사업기간은 상업운전일로부터 20년(13-33), 최초의 이슬람금융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제경쟁입찰 • 수주형 사업(발주처 사우디전력공사 SEC), BOO 방식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200억 달러, 2017-2020년 사이 가동목표, 한전 중심으로 국내기업 컨소시엄 구성, 자금조달구조설계 진행 중 • 수주형 사업, 일괄 공급방식(건설, 핵연료 공급, 운영·유지보수 지원)
	아랍에미레이트	슈웨이hat S3 가스복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4억 달러, 사업기간 2014 상업운전 개시, 준공 후 25년, 한전스미토모콘소시엄(아부다비수전력청 60%, 한전 19.6%, 스미토모 20.4%) • 수주형 사업(10.10), BOO 방식, EPC 대우건설-지멘스, 운영은 한전 담당
멕시코	노르메 II 가스복합발전 건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4.3억 달러, 사업기간 13-38, 25년 전력수급계약(PPA), 매출액 예상 95억 달러, 한국콘소시엄(한전 56%, 삼성물산 34%, 멕시코 테크인트 10%), 3.5억 달러 프로젝트금융 • 수주형 사업, BOO 방식, EPC 삼성엔지니어링·테크인트 콘소시엄(KST), 운영·보수는 한전 	
카자흐스탄	변전소현대화 EPC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약 1억 달러, 유럽부흥은행자금, 사업기간 11.2 착수 후 34개월 • 수주형 사업, 한전·현대엔지니어링·현대종합상사 컨소시엄 	
	송전선로 EPC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0.46억 달러, 국제은행 자금, 사업기간 11.3 착수 후 20개월 • 수주형 사업, 한전·현대종합상사 컨소시엄 	
	도미니카	배전선로 EPC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0.45억 달러, 미주개발은행자금(IDB), 사업기간 11.4 착수 후 18개월(13.5 준공예정) • 수주형 사업, 중남미지역 송배전분야 진출기반 확보, 한국의 IDB 가입 이후 최초의 IDB 차관사업 수주
한국 가스공사	멕시코	만사니요 LNG 터미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08.3-31.8, 공사 25%, 삼성물산 37.5%, 일본 미쓰비시 37.5% 지분구조의 국제콘소시엄(공사는 건설관리, 터미널운영, 건설부문은 삼성엔지니어링) • 연 380만톤 처리규모, 사업방식 BOO, 가스공사 투자금액 4880만 달러
	호주	글래드스톤 LNG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10-35(15년부터 20년간 연 350만 톤 도입), 공사 15%, 호주 Santos 30%, 말레이시아 Petronas 27.5%, 프랑스 Total 27.5% 지분구조 • 국제콘소시엄, 세계 최초 석탄층매탄가스(CBM)을 이용한 LNG 사업

진출 기업	진출 국가	사업대상	주요 내용과 성격
한국 가스 공사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르(DS) LNG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37억 달러, 사업기간 10-23, 가스전 사업과 터미널 사업으로 구성, 액화플랜트의 단순도입에서 개발 도입으로 페러다임의 전환 가스전은 SPC 20% (미쓰비시 10.2%, 공사 9.8%), 인도네시아 Petromina 50%, Medco 30%, 터미널은 SPC 59.9%(미쓰비시 44.925%, 공사 14.975%), 인도네시아 Petromina 29%, Medco 11.1%

자료: 필자 심층면접조사

부표 3. 해외자원 개발 유형 직접투자사례

유형	기업	진출 국가	사업 기간	사업 대상	사업방식과 내용
탐사 사업	한국 가스 공사	동티모르	10-11	해상광구	• 공사 10%, 포르투갈 GALP 10%, 이탈리아 ENI 80% 지분구조의 국제건설사업
		인도네시아	07-12	해상광구	• 공사 15%, 일본 미쓰비시 10%, 이탈리아 ENI 75% 지분구조의 국제건설사업
		모잠비크	07-12	해상광구	• 공사 10%, 이탈리아 ENI 70%, 포르투갈 GALP 10%, 모잠비크 ENH 10% 지분구조의 건설사업
		우즈베키스탄	09-13	우스투르트광구	• 한국기업건설사업 50%(공사 25%)와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 50% 지분구조의 공동투자사업
	한국 전력 공사	캐나다	07-11	크리이스트 우라늄	• 한국건설사업(한전, 한화, 광업진흥공사, SK 각 12.5%)과 캔알래스카 50:50 지분 • 투자비 0.19억 달러(한전 475만달러), 기초탐사
			10-13	위터베리레이 크 우라늄	• 한국건설사업(한전 20%, 한국수력원자력 15%, 한전원자력연료 5%, 한화 5%, 그라비스 5%)과 피션 에너지 50:50 지분 • 투자비 0.3억 달러(한전 600만 달러), 지난 3년간 1400만 달러 탐사비 투자, 정밀탐사
	한국 석유 공사	미국	11.12	멕시코만 천해	• 사업비 0.65 백만 달러, 공사 80%, 삼성물사 20%, • Houston Energy사 멕시코만 천해 SS217 탐사 리스
			10.7	텍사스 마사 광구	• 공사 25%, 삼성물산 25%, 한국 측 공동운영, 육상광구 • 미국 Ankor 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07.11	멕시코만심해 4개 광구	• 미국 Murphy사(운영권자)와 Diamond, Emerald, Platinum, Gold 공동입찰 참여, 한국 측 지분은 앞의 세 개 광구 각각 30%, Gold 사업 20%, 공사 지분은 각각 10.5%, 7% • 탐사계약기간 08-18, 한국건설사업 공사, 경남기업, 삼천리, 한화, SK가스
		이라크	07.11	쿠르드 바지 안광구 탐사 시추	• 10년까지 투자비 0.82억 달러, 공사 50.4%, SK에너지 15.2%, 대성 7.6%, 삼천리7.6%, 범아 7.6%, 마주코 3.8%, GS홀딩스 3.8%, 유아이에너지 4% 등 한국 100% • 탐사기간 07.11-12.11, 개발생산기간 상업적 발견일로부터 20년
			08.12	쿠르드지역 탐사 광구	• 투자비 4억 달러(서명보너스 2,114억, 탐사비 1,886억 달러), 탐사실패시 6500만배럴의 원유보장 계약 • Qush Tappa 광구 지분 80%, Sangaw North 광구 20%, Sangaw South 광구 60%, Hawler Area 광구(1개 계약서에 Khabar 등 4개 광구 포함) 15%
		나이지리아	06.3	OPL 321/323 탐사 광구	• 사업비 1.5억 달러 기 투자, 서명보너스 2.3억 달러, 한국건설사업 60%(공사 지분 43.875%), 영국 Equator 30%, 나이지리아 현지회사 10% • 나이지리아 정부와 소송, 광구분양 무효통보에 대한 법원 판결 1심 승소(09.8)
러시아		05.8	서캄차카 해상유전 광구	• 한국건설사업 40%(석유공사가 50%,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SK(주), 대우인터내셔널이 각 10%, 금호석유화학, 현대중합상사가 각 5%), 러시아 로스네프트 60%, • 한국건설사업 투자액 2,5284억 달러(공사투자액 1,2642억 달러), 공사 지분 20%	
		06.3	캄차카 육상 광구(Tigil, Icha)	• 한국건설사업 50%, 운영권자 캐나다 CEP Petroleum, 한국 건설사업이 Cyprus에 project company (KKPL) 설립, KKPL을 통해 광권 보유회사(Tigil Expl 및 Icha Expl) 주식 50%를 지주회사 (Lukinholot: CEP 러시아 현지법인)로 부터 인수, 전체 지분중 공사의 사업지분 27.5% • 한국 건설사업 지분구성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계약기간 Icha 광구 03. 5-08.5(5년), Tigil 광구05.12-10.12(5년)	
우즈베키스탄		10.6	서페르가나, 취나바드	• 한국건설사업 100%, 공사 65%, 포스코와 삼천리 35% • 운영권자 한국석유공사, 11.8 우즈베크 승인 완료, 현재 탄성파탐사 자료 취득작업	

유형	기업	진출 국가	사업 기간	사업 대상	사업방식과 내용
탐사 사업	한국 석유 공사	우즈베키스탄	08.12	나망간 추스트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컨소시엄 100%(공사 50%, SK가스 15%, 경남 10%, 삼천리 10%, 포스코 10%, 신한은행 5%), 계약기간 5년,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00% 지분을 갖는 사업
			06.10	아랍해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지분 20%(공사 10.2%, 포스코 9.8%), 우즈베키스탄 UNG, 러시아 Lukoil, 중국 CNPC, 말레이시아 Petronas 각 20% 공동참여, 계약기간 35년(탐사 5년 개발생산 30년), 의무투자비 9980만 달러(공사 2천만 달러), • 07-11 1차 탐사기간에 가스발견, 현재 탐사 2기 작업 중
		콜롬비아	09.1	CPO-2 / CPO3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30%, 운영권자인 아르헨티나 Pluspetrol 70% 공동입찰 참여 • 2012년 초 탐사시추 계획, 계약기간은 6년 탐사 24년 개발
			08.10	CPE 7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30%, 아르헨티나 Pluspetrol 40%, 중국CNPC 30%, 계약기간 13.6까지 연장 • 콜롬비아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70% 생산하는 야노스 분지 소재광구
		아제르바이잔	07.10	이남탐사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컨소시엄 20%(공사 8%), BP 25%(운영권자), Shell 5%, SOCAR(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사, 50%), 공사투자비 0.24억 달러 • 한국컨소시엄 공사 40%, 경남기업 20%, GS칼텍스 20%, 대우인터네셔널 10%, STX 10%
		카자흐스탄	05.3	잠발탐사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금액 0.85억 달러, 한국컨소시엄 27%(공사 9.45%, SK에너지, 삼성, LG, 현대하이스코, 대성, 아주산업, 대우조선해양), • 탐사기간 08-14
			06.12	사우스카르포브스키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카자흐스탄 공동운영사 KKM 설립, 한국 측 지분 75%, 공사지분 42.5% • 06년 석유공사(17.5%), GS홀딩스(12.5%), 경남기업(7.5%), 금호석유(5%), 현대중공업(5%), 카즈너지(2.5%) 등이 각각 참여, 10년 KKM의 지분 50%를 보유한 카자흐 CAEH사 지분 25%를 공사가 인수하여 최대주주(42.5%)로 부상
			06.12	에끼즈카라 육상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측 지분 50%, 공사 25%, 한국컨소시엄 운영권자 LG상사, ADA LPP의 지분의 25% 인수 • LG상사가 06년 지분 50%를 인수함
		예멘	05.12	16 해상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컨소시엄 지분 95%, 공사가 50%, 삼성물산 20%, 대성산업 및 GS 홀딩스 각각 15%, 탐사기간 06.1-11.12, • 운영권자 석유공사, 공사 투자비 639만 7천 달러
			07.7	4 육상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억1,400만 달러(공사 5,580만 달러) 투자, 한국컨소시엄 50%, 공사 28.5%, 현대중공업 14.25% 환화 4.75%, 예멘 YICOM 50%, 계약기간 07-22 • 한국컨소시엄 지분참여계약 총 8153만 달러(약 978억원), 2011년 현재 일 180배럴 생산.
		예멘	07.5	예멘39 육상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컨소시엄 95%, 예멘 국영회사 YOG 5%, 운영권자 공사 • 공사 50%, 삼천리 20%, 대성산업 15%, GS홀딩스 15%, 탐사계약 6년, 생산 2022년까지
			05.6	예멘70 육상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컨소시엄 25.65%(공사지분 12.35%, 국내참여기업 삼성물산, 대성산업), 운영권자 프랑스 Total, • 08-09 탐사시추 이후 한국 참여사 보유지분의 60%를 Total로 양도
		베냉	04.12	2, 3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의 아키안(Archena)사로부터 지분 80% 및 운영권 인수, 2005년 12월 탐사기간 1년 특별연장 계약(공사지분 80%), • 아프리카 자원개발 처음 진출
		개발 사업	한국 가스 공사	미얀마	01-38
캐나다	10-55				키위가나 광구 개발
	11-38			북극권 우미약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20%, 캐나다 MGM 40%, 미국 ConocoPhillips 40% 지분구조의 국제컨소시엄 • 국내 최초 북극권 진출, 국제입찰
이라크	10-35			바스라 주바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18.75%, 이탈리아 ENI 32.81%, 미국 Occidental 23.44%, 이라크 MOC 25% 지분구조의 국제컨소시엄(국제입찰), 유전개발 사업
	10-35			바드라광구 유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22.5%, 러시아 Gazprom 30%, 말레이시아 Petronas Carigali 15%, 터키 TPAO 7.5%, 이라크 OEC 25% 지분구조의 국제컨소시엄(국제입찰)
	10-35			아카스 광구 가스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37.5%, 카자흐스탄 KMG 37.5%, 이라크 NOC 25% 지분구조 • 국제컨소시엄(국제입찰, 가스공사 최초의 자원개발 운영사)
	10-35			만수리아광구 가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15%, 터키 TPAO 37.5%, 쿠웨이트 KEC 22.5, 이라크 OEC 25% 지분구조 • 국제컨소시엄(국제입찰), 가스전 개발사업

유형	기업	진출 국가	사업 기간	사업 대상	사업방식과 내용
개발 사업	가스 공사	우즈베키스탄	08-38	수르길 광구 가스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컨소시엄 50%(공사 22.5%)와 우즈베키스탄국영석유가스공사 50% 지분 • 한국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 국영회사의 공동투자사업
	한국 석유 공사	미국	11.3	세일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금액 15.5억 달러, 공사 23.67%, 야나다코 47.33%, 기타 29%, • 최초 비전통 생산유전 지분인수
			10.12	Old Home 육상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측 공동운영, 한국지분 46.75%, 공사 지분 23.375%, 국내 참여기업 STX • 알라바마주 소재 육상 광구, 개발·생산광구
		캐나다	06.7	Blackgold 오일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금액 2.7억 달러, 공사 지분 100%, 비전통원유 사업참여 및 개발에 활용 • 생산시설 건설은 국내기업인 GS E&C(3600억원)가 10.7 착수, 개발광구 인수
	카자흐스탄	09.12	Arystan Kulzhan 개발·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쉘베(Sumbe) 인수, 인수금액 3.35억 달러, 공사 85%, 카자흐스탄 파르너사 15%, 카자흐스탄 주식거래시장(KASE)에서 쉘베 주식을 인수하여 M&A 성사 • Arystan 광구는 시험생산, Kulzhan은 탐사광구 	
생산 사업 및 생산 시설 인수	한국 가스 공사	오만	96-24	오만 LNG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만 LNG LLC사 지분확보, 한국기업컨소시엄 5%(공사 1.2%, 투자비 8.4백만달러), 오만 정부 51%, 네덜란드 Shell30%, 프랑스 Total 5.54% 지분구조의 공동투자사업 • LNG660~700만톤/년, 한국컨소시엄 구성은 공사 24%, 삼성 20%, 현대 20%, 대우 20%, SK 16%
		카타르	96-24	카타르 Ras LNG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르 Ras사 지분확보, 한국기업컨소시엄 5%(공사 3.0%, 투자비 29.4백만 달러), 카타르 QP 63%, 미국 엑슨모빌 25%, 일본 Itochu 4%, LNG Japan 3% 지분구조의 공동투자사업 • LNG600~650만톤/년, 한국컨소시엄의 지분구성비는 공사 60%, 삼성 10%, 현대 8%, SK 8%, LG 5.6%, 대성 5.4%, 한화 3%
		예멘	09-34	예멘 LNG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6%, 현대 5.88%, SK 9.55%, 프랑스 Total 39.62%, 캐나다 Hunt 17.22%, 예멘국영연기금펀드(GASSP) 5% 지분구조의 국제컨소시엄 • LNG670만톤/년, 현대 지분 2.88% 공사 추가인수 후 8.88%로 증가(투자비 263백만 달러)
	한국 전력 공사	인도네시아	09.7 투자	아다로 에너지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다로에너지사 주식 1.5% 인수, 투자비 0.51억 달러, 남동발전 참여(0.3%인수) • 세계 5위 유연탄수출기업, 유연탄 300만톤 확보
			10.7 투자	바얀리소스사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얀리소스사 주식 20% 인수, 투자비 5.18억 달러(6180억원), • 바얀리소스사는 8개 광산, 터미널, 브리케팅, 광산운영회사 등 Coal Chain 구축, 유연탄 700만톤 확보
		호주	08.1 투자	몰라벤 유연탄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펠릭스사 지분 5% 인수, 투자비 0.45억 달러, 지분인수 사업 • 유연탄 250만톤 확보, 한전(1%), 발전4사(4%), 광물공사(4%), 한화(1%)
			07.11 투자	코카투사 지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카투사 지분 8.3%(유상증자 주식 49.9백만주 인수), 투자비 0.2180억 호주달러, • 발전용탄 연간 250만톤 선매권, 동서발전 공동투자
			10.7 투자	바이롱 유연탄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롱 광산 100% 인수, 투자비 3.4억 달러(4억 호주달러, 4190억원), 한전·포스코·호주 코카투사가 영급로사 동시 매각 5개 광산에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 유연탄 연 750만톤 생산계획
			10.7 투자	오나뷰 유연탄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나뷰광산 51% 인수, 유연탄 연 200만톤 생산계획, 투자금액은 무상 • 바이롱광산 지분 30% 콜옵션 부여대가(3년내)로 코카투사로부터 무상이전 받음
	캐나다	09.6 투자	테니스사 지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니스사 지분 17.07% 인수, 투자비 0.754억 캐나다달러, 한전(75%)과 한수원(25%) 공동투자 • 우라늄 연 300톤 확보 	
	니제르	09.12 투자	이모라렝 우라늄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레바 NCE사 지분 15% 인수(유상증자 참여, 이모라렝광구 지분 10%), 인수금액 약 2967억원, 한전(60%)과 한수원(40%) 컨소시엄, 생산계획기간 13-36, • 우라늄 연 740톤 확보 	
	한국 석유 공사	미국	11.12인수	Northstar사 자산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201백만 달러, 석유공사 67%, STX에너지 외 1개사 33% • Northstar사 멕시코만 생산자산 인수, 일생산량 4.7천 배럴
11.12인수			Parallel사 자산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771.5백만 달러, 삼성 인수금액 8억 달러, 석유공사 10%, 삼성물산 90%, 일생산량 8.4천배럴 • Parallel사 육상 생산자산 인수(8개 생산유전, 2개 가스전, 3개 탐사광구), 소유주인 미국의 대형 사모투자펀드 Apollo Global Management의 매각계획에 따라 인수 	
08.2		Taylor Energy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금액 10억 달러, Taylor Energy사 생산광구(5개 유전, 16개 리스) 인수 • 공사의 미국현지운영회사 ANKOR Energy로 변경, 공사 80%, 삼성물산 20% 		
카자흐스탄	05.12 투자	아다(ADA)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특용자와 자체조달, 한국컨소시엄 50%(석유공사(22.5%, LG상사 22.5%, Kang LLP 5%), 카자흐스탄측 50%(공동운영), 탐사기간 04.12-10.12 • 탐사광구로 시작 06년 원유 발견, 09년 추가 지분 인수후 공사지분 40%, 한국지분 75%, 국내기업의 해외유전 개발은 베트남 해상유전에 이어 본 유전이 두 번째 		

유형	기업	진출 국가	사업 기간	사업 대상	사업방식과 내용
생산 사업 및 생산 시설 인수	한국 석유 공사	카자흐스탄	11.3	Altius사 지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5.15억 달러, 공사 95%, 카자흐스탄 Kernhem사 5% 4개 생산·개발광구를 보유한 카자흐스탄 알티우스사 인수
		캐나다	09.12	Harvest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39.5억 달러(자체조달, 17.19억 달러는 현금, 나머지는 부채 인수), 공사 지분 100% 생산광구, 정제시설 인수, 오일샌드·CBM(Coal bed methane)과 관련개발기술 확보
			10.12	Hunt사 자산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5.25억 캐나다 달러, 공사지분 100%,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세일가스 등을 보유하고 있음 캐나다 Hunt Oil Company of Canada 및 Hunt Oil Alberta 인수
		콩고	08.1	엠분디 생산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4.3억 달러, 계약기간 02.7-22.7(5년 연장 옵션), 지분인수 사업 영국 Tullow사의 콩고 M'Boundi(엠분디) 생산광구 지분 11% 인수
		영국	95.12	캡틴광구 지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2.1억 달러, 공사·SK에너지 합작법인 KCCL이 Chevron-Texaco사로부터 지분 15% 인수 2009년 SK 지분을 인수하여 KCCL 단독주주가 됨
			11.1	다나사 적대적 인수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29.97억 달러, 공사 지분 100% 인수, 매장량 약 244백만 배럴(일 생산량 약 47천 배럴) 규모의 개발/생산 및 탐사자산을 보유 미주지역 편중사업을 유럽·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는 기반 구축, 국내 공기업이 세계 M&A 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서 성공시킨 최초의 사례로 세계의 주목
		페루	96.7	페루 8광구 지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5.6백만 달러, 아르헨티나 Pluspetrol사(60%)와 한국의 3개사 컨소시엄 40% 공동인수 국내기업 지분은 공사 20%, 대우인터내셔널 11%, SK 이노베이션 8%
			09.1	Petro Tech 사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금액 총 9억 달러 공사 4.5억 달러, 공사 50%, 콜롬비아 Ecopetrol 50%, 공사 최초의 외국석유 회사 M&A, 인수대금 전액 해외채 발행, 향후 총 25억 달러 투자계획 페트로테크(현 SAVIA Peru, 페루 해상광구의 75% 소유)의 모회사 OIC 지분 인수
		인도네시아	02.12	SES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지분 8.91%, 계약기간 02-18, 06년 이후 가스전 개발 및 생산 중국 CNOOC가 운영권자(지분 65.54%), 일본(Inpex) 13.07%, 네덜란드(Orchard Energy) 5.00%, 영국(Paladin) 7.48%의 지분 보유
		베트남	92.8	11-2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컨소시엄 75%(공사, LG상사, 대성,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삼환, 서울도시가스), 베트남 PVEP 25%, 운영권자 석유공사, 최초 지분 100%, 04년 25% 베트남 양도, 공사지분 39.75%로 감소 공사 최초 해외운영광구, 시추부터 모든 단계를 공사 주도로 국내기업과 기술로 추진, 계약기간 92-28
			98.8	15-1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간 03-23, 공사지분 14.25%, SK 9.0%, 베트남국영석유회사 50%, 미국 Conoco-Phillips 23.25%, 프랑스 Geopetrol 3.50%, 운영권자 다국적 컨소시엄인 CLJOC 98 광구 탐사권 취득, 03.10 생산개시, 계약기간 개발·생산 25년
		중국	97.12	마황산 석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130억 원, 공사 44%, 삼성물산 44%, 중국 난천공사 12%, 계약기간 99-28(석유합작개발계약) 운영권자로서 중국 내륙에서 직접 탐사를 실시하여 석유발전에 성공
		예멘	97.2	마리브 가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49.95억 달러(EPC 35.3억 달러), 사업주 프랑스 Total, 미국 Hunt, 예멘 가스공사, 예멘 사회보장연금청, 한국컨소시엄(21.43%), 수출입은행 4억 달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공, 공사지분 1.0613 SK 컨소시엄이 84년 개발에 성공한 마리브유전에서 추가 가스발견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내 최초의 가스자원 해외 자주개발
리비아	91.1	엘리펀트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컨소시엄 4%(공사 2%, SK, 마주코, 대성, 서울도시가스), NOC 88%, 이탈리아 ENI 8% 90년 탐사 및 생산물 분배계약 체결, 08년 계약 개정으로 2032년까지 연장 		
베네수엘라	97.8	오나도 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지분 5.64%, 베네수엘라 PDVSA 60%, 아르헨티나 CGC 26%, 에콰도르 Petroecuador 8.356% 개발참여 당시 공사 지분은 14.1%였으나 2006년 베네수엘라 정부가 외국기업의 유전광구 지분 중 60%를 가져가기로 함에 따라 석유공사의 지분은 5.64%로 축소(무상양도 MOU 체결), 당시까지 투자액 0.3513억 달러, 회수 0.2136억 달러 		

자료: 필자 심층면접조사

참고문헌

감사원, 2011,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국토해양부, 2010, MDB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해외건설협회.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기획재정부, 2011, “공공기관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 거둬.” 보도자료.
 김용창, 2012,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1): 이론적 고찰, 공기업 FDI 특징 및 전략,”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1), pp.1-25.
 대한상공회의소, 2008, 최근 세계 FDI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박노혁, 2010, “해외사업을 통한 녹색성장 방안 :파키스탄 Patind 수력발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물과 미래 43(1), pp.89-94.
 박원석·최진우, 1997,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천우, 2011,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ODA정책,” 산업경제연구 24(2), pp.777-808.
 조진철·박은관 외, 2009,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지식경제부, 2011a, “해외에너지·자원 확보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국민경제대책회의의 보고자료.
 지식경제부, 2011b, “전력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 발족,”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2011c, 해외자원개발 사업 통계.
 한국도로공사, 2010, 2010 해외사업 연간보고서.
 Caves, R. E., 2007,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uss, H., 2004, “The role of international property investments in the global asset allocation process,” Proceedings from the PRRES Conference, [http://www.prrs.net/\(2012.1.10](http://www.prrs.net/(2012.1.10) 접속)
 ICAS and WBG(Investment Climate Advisory Services

and World Bank Group), 2010, *Investing Across Borders: Indicato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ion in 87 Economies*.
 Inderst, G., 2009, “Pension fu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32, pp.1-45.
 Newell, G. and Worzala, E., 1995, “The Role of International Property in Investment Portfolios,” *Journal of Property Finance* 6(1), pp.55-63.
 Ramamurti, R., 2011, “Impact of the crisis on new FDI players: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vereign wealth funds, private equity and emerging market transnational corporati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20(1), pp.39-68.
 Shimizua, K., Hittb, M. A., Vaidyanathc, D. and Pisano, V., 2004, “Theoretical foundations of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0, pp.307-53.
 UNCTAD, 2011,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Non-Equity Mode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교신: 김용창, 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화: 02-880-4066, 이메일: kimyc@snu.ac.kr
 Correspondence: Yongchang Kim,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151-742, Tel: +82-2-880-4066, e-mail: kimyc@snu.ac.kr

최초투고일 2012년 1월 25일
 최종접수일 2012년 4월 27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5, No.2, 2012(166-191)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ies in Korea(2): Typologies, Characteristics of FDI and Interpretation of Nationality Issues

Yongchang Kim*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gent specificity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y proceeds in overseas investments. At first this paper examines general features focused on investment region, project type, starting year, and then analyzes overseas investments based on specific cases with three classifications which are composed of special consulting type that do not accompany capital investment, FDI type, and type of overseas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that go with capital investment and business risk. Finally nationality issues that is generated by agent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public company are interpreted in perspective of duality which is financial pressure and dependency of host country's position, and relationship with private capital of home country.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Typology of FDI, Public Company, Infrastructure, Overseas Investment for Energy Resource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